



## 칼럼

### 봄날은 간다



김 규 중

경북대학교 노문학과 교수  
(2019학년도 전남대-경북대 교류 교수)

그런 봄날이 있었다. 지난 5월 3일 김남주 기념홀 개관식 행사 당일이었다. 내가 현대시의 3김으로 꼽는 세 시인 가운데 막내 김남주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자리. 1960년대 김수영, 70년대 김지하, 80년대 김남주. 그들 있음으로 한국 현대시는 깊고 너른 터를 가지게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전남대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두 달 만에 맞이한 뜻깊은 행사. 아직도 햇살이 남은 7시 무렵 조경순 부학장, 정구중 행정실장과 막걸리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류재한 학장이 동석한다. 행사 주빈으로 참석자들을 전송하고 다소 늦게 합류한 것이다. 그날 처음으로 인문대 학장과 부학장, 행정실장을 대면했다. 자리를 매개한 것이 김남주 기념홀 개관식과 막걸리였으니 얼마나 흐뭇한 자리였겠는가! 오랜 지기처럼 술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인문대 3호관 등나무 벤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으며, 그날의 흥취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는 분명 <봄날은 간다>였을 터.

2019년은 전남대와 경북대가 교수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해다. 전남대로 파견되어 광주와 전남대를 하나씩 알아가던 봄날이 훗, 소리 내며 지나가고 말았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서양속담이 적실함을 절감하는 시점이다. 화사한 봄날도, 더운 여름날도, 10월에 찾아온 늦깎이 태풍도 스러지고, 조석으로 찬바람 부는 시절. 이제는 광주도 전남대도 오래 전부터 나의 터전처럼 느껴진다. 그 배후에 봄날의 술자리가 있

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받은 질문은 “전남대에 왜 왔나?” 하는 것이다. 1980년을 경험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광주에 심정적인 빛을 느끼며 살아간다. 생을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이다. 그런 심사가 가장 컸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발화한 적은 없다.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느낌 탓이리라. 하되 광주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양상으로 다가오곤 한다. 인문학과 예술과 의향으로 광주는 자랑스럽고 당당하다. 반면에 기초적인 교통신서가 무너져있는 장면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쩌면 1대 99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목과 초지와 광장과 용호가 능름한 전남대 교정은 아름답고 넉넉한 것이었다. 경북대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와 답답한 건물 숲에서 벗어난 해방공간으로 느껴진다. 이런 교정이 태초부터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중적인 인식은 아쉽다. 그들에게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미미한 것으로 감촉되는 것 같다. 역사문화를 사상한 채 작은 지식과 정보습득에 여념 없는 학생들을 보노라면 장탄식이 나온다. 노파심이기 바란다.

2020년 2월이면 대구와 경북대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세월이 물처럼 흐르면 꿈처럼 봄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혼자 읊조릴 것이다, 필시. <봄날은 간다>를, 그리고 떠올릴 것이다. 지난 5월 3일 따뜻하고 푸근했던 봄날의 술자리를! 이 자리를 빌려 여러 교수님들, 행정실 선생님들께 고개숙인다. 언젠든 경북대 오시면 연락하시라 부탁드리며!

## Contents

- 02-03 인문대학 소식
- 04 함께하는 인문학
- 05 교직원 소식
- 06-09 학과 소식
- 10-11 연구소
- 12 김남주기념홀
- 13-15 BK21+사업단
- 16-17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18 취업
- 19-21 신간

## 2019년도 교수세미나 실시



인문대학(학장 류재한)에서는 10월 18일(금)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및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교수세미나를 실시했다. 인문대학은 매년 1회 교수세미나를 실시하고 인문대학의 발전 방안과 중요 현안 등을 논의해 왔다.

올해 교수세미나는 교내 중요 현안에 주목해 '강사법 운영 관련 논의, 영호남지역 인문대학간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뮤지컬(맘미아)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 50여 명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 및 학과 조교들이 참석했다.

## 국어국문학과 김동근 교수 '2019 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



국어국문학과 김동근 교수가 '2019 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문학, 한국화, 서양화, 국악 4개 부문에서 김동근 교수(박용철 문학상)를 비롯해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이 고장 출신으로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류재한 학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 당선

10월 24일(목)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약칭 국인협) 정기총회에서 인문대학 류재한 학장(불문과 교수)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인협은 인문학의 발전과 진흥, 인문대학의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인문대학 협의체이다. 1992년에 창립했으며 전국의 27개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2006년에 윤평천 전 인문대학 학장(국문과 명예교수)이, 2017년에는 김양현 전 인문대학 학장(철학과 교수)이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 불어불문학과 민진영 교수, 인문학 심화 시범사업 도서관 지혜학교 진행

불어불문학과 민진영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의회와 전국국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지혜학교'에서 '유럽문학에서 배우는 지혜: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총 12회의 문학 강좌를 진행했다.

지혜학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심화프로그램으로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연을 지양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 주제 강독과 쌍방향 토론, 연구모임, 개인별 지도, 글쓰기 등을 통해 지혜를 체득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고학력 은퇴자이며, 이들에게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을 활용해 인생 후반기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직 방송작가, 직장은퇴자,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주부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수강생들은 독서, 토론, 감상평 쓰기 등을 통해 숨겨진 감성을 일깨울 수 있었으며, 인생 2막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인문대학 교수, 경북대 기초보호 학문분야 콜로키움 참여



인문대학 교수들(류재한 학장 외 8명)이 경북대 기초보호 학문분야 콜로키움 참여해 인문학과 인문교육의 미래를 모색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12월 18일(수) 경북대 인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인문학 연구와 인문교육의 성찰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콜로키움의 발표자는 경북대와 전남대 교수진으로 구성했으며, 양 대학의 33명의 교수가 발표, 토론, 사회로 참여하고 시민도 참석해 열린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대 발표자로 류재한 인문대학장이 국립대 인문교육의 역할을, 강은영(사학과), 민진영(불문과), 박구용(철학과), 조경순(국문과) 교수가 인문대학 연구·교육의 방향을 발표했으며, '학제간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다루는 세션에서는 신해진 교수(전남대 BK+사업단장), 정명중 교수(HK사업단 소속 교수)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학제간 인문학 연구의 진행 과정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정미라(인문학연구원장)과 정경운(호남학연구원장)이 참여하여 인문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탐색했다.

## 2019년도 인문학 대중화사업

### ① 권영진이 들려주는 달빛동맹 이야기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이 9월 19일(목)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권영진이 들려주는 달빛동맹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특강은 광주-대구 달빛동맹과 영호남 교류협력 차원이자 인문대학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했으며, 현재의 지역 상황과 양 도시가 발전적 미래로 함께 재도약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젊은 청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주의 해소는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오늘 특강으로 젊은 청년들이 영호남을 상호 올바르게 이해하고 화합해 나가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② 유럽문명의 이해: 역사속 인물 중심으로



박호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가 10월 17일(목)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유럽 문명의 이해: 역사속 인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호 국제관계대사는 유럽지역 대사관 근무 경험 등을 살려, 그리스·로마 문명부터 세계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 문명을 역사 속 중요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냈다.

특히 수백 년 간 유럽인들이 꿈꿔 온 유럽 통합의 역사를 나폴레옹, 마틴 루터 등의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흥미를 끌었다.

또한, 취직을 준비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대한 소개 및 지원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 ③ 안톤 체호프와 그의 시대



김규중 경북대학교 교수(2019년도 전남대-경북대 교환교수)가 12월 3일(화) 인문대 2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안톤 체호프와 그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날 강연은 광주 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체호프의 시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며, 4대 장막극과 모스크바 예술극장 등을 다뤘으며, 작가의 <세 자매> 작품에서 고찰해야할 문제 등을 청중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④ 광주 도시 성장과 과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이 12월 5일(목) 인문대학 소강당에서 ‘광주 도시 성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시작 전, 광주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통해 젊은 학생들이 광주 도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광주의 구역 변천 및 인구 변화의 자료 제시와 현재 광주광역시의 사업 현황 등을 통해 앞으로의 광주도시 발전과 ‘광주다움’을 연관지어 고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함께하는 인문학〉 도시와 인문학

인문대학에서는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윤, 전남대 명예교수)과 공동주관으로 9월 26일(목)부터 11월 21일(목)까지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도시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

광주 전남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함께하는 인문학〉은 도시와 인문학이라는 주제 안에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기억 공간으로서 예술의 중요성, 현대 건축의 변화 양상 그리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유하는 통섭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9월 26일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아파트에 숨어서 쉬는 한숨’을 시작으로, 10월 10일 ‘눈물나게 좋은 날의 상상’, 17일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연강으로 진행됐다. 10월 24일에는 신해진 교수(전남대 국문과)의 ‘의(義)와 호남의 도시: 의록(義錄) 문헌의 변천’, 10월 31일에는 송하엽 교수(중앙대 건축학부)의 ‘동서양 낮아지는 랜드마크’ 강좌가 이뤄졌으며 11월 7일에는 김선정 대표(광주비엔날레)의 ‘기억공간과 현대예술’, 11월 14일에는 송하엽 교수의 ‘도시건축 해석의 깊이’ 강좌가 열렸다.

본래 이번 〈함께하는 인문학〉은 14일로 마무리되는 일정이었으나, 청중들의 요청으로 박구용 교수의 특별 추가강연(‘사랑, 죽어가는 생명’)이 11월 21일에 이뤄졌다.

한편, 하반기 인문학 강좌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서 ‘도시와 인문학’ 키워드로 검색해 시청이 가능하다.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



신해진 교수(전남대 국문과)



송하엽 교수(중앙대 건축학부)



김선정 대표(광주비엔날레)

### 신임교수 인사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철학과에서 신유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게 된 이원석입니다.

저는 1973년 인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후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거친 후 2011년 『북송대(北宋代) 도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여러 대학 강의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학위논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북송대에는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직면했던 것 중 하나가 당말(唐末)의 한유(韓愈)와 이고(李翱)가 제기했던 인성론의 문제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왕안석(王安石)의 신학(新學), 소식(蘇軾)의 촉학(蜀學), 그리고 이정(二程)의 도학(道學) 혹은 성리학이 차례대로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자-맹자-이정(二程)-주희(朱熹)로 이어지는 도통론에 입각해 전통 유학을 바라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정이나 주희는 더 넓은 지적 지평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그런 지평 속에서 도학 혹은 성리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관련 연구도 진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서 접변 연구팀에 소속되어 19세기 성리학의 동서 접변 양상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이 서학(西學)과 만나면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조선 경학



**이원석**  
철학과 교수

연구팀에 소속되어 주로 조선 성리학자들의 『대학(大學)』 주석서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정치하고 치열한 사유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구지책으로 시작했지만 위잉스(余英時)의 『주희의 역사세계』, 거자오광(갈조광)의 『이 중국에 거하라(宅茲中國)』, 야스다 지로(安田二郎)의 『중국근세사상 연구』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신 인문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만나 뵈고 직접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내서점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수정증보판을 사서 틈나는 대로 읽는 중입니다. 1991년 대학에 갓 입학해 이 책을 읽으며 마치 당시 현장에 있는 듯 극도의 공포감과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대학본부 주최로 열린 신임교원 환영 만찬회에서, 『넘어넘어』를 언급하며 광주와 전남대에 진 빛을 갚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일하겠다고 겁도 없이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용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제가 전남대 철학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게 된 것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섬겨 보라는 무언의 명령이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학기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신 인문대 여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올립니다.

### 교직원 동정

#### 연구소

•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동근**  
한국어문학연구소장 2019.9.1. ~ 2021.8.31.

#### 승진 2019. 9. 1일자

• **영어영문학과 백승현**  
부교수 → 교수

#### 학과장 / 주임교수

-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조자경**  
독일언어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주임  
2019. 9. 1. ~ 2021. 8. 31.
- **사학과 교수 김병인**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주임  
2019. 9. 01. ~ 2021. 8. 31.
-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태완**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주임  
2019. 9. 1. ~ 2021. 8. 31.
- **철학과 교수 조윤호**  
철학과 학과장 / 대학원 철학과 주임  
2019. 9. 1. ~ 2021. 8. 31.

#### 신임 교수 임용 2019. 9. 1일자

• **철학과 이원석**

#### 연구년

-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신중 / 철학과 교수 원승룡**  
2019. 9. 1. ~ 2020. 2. 29.
- **불어불문학과 교수 임채광**  
2019. 9. 1. ~ 2020. 8. 31.

#### 인문대학 발전기금

- **인문대학 류재한 학장** 6,000,000원
- **국어국문학과 신해진 교수** 1,000,000원

## 국어국문학과

###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창작 캠프 실시

국어국문학과(학과장 백승주 교수)에서는 9월 18일(수)부터 23일(월)까지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창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이자 단편영화 <신기록>(2018)으로 제 39회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이경호·허지은 감독의 지도를 통해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총 5일, 20시간으로 진행된 캠프를 통해 영상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제반 과정을 학습하고 실습하며 결과물을 창출했다.

### 국어국문학과 디지털 인문 문화기획 학술 정기조사 실시

학과는 9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3일간, 제주 일대를 답사하며 '디지털 인문 문화기획 학술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정기조사를 통해 국어국문학을 기조로 한 '문화(학) 기획자'를 체험하고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을 탐구해 디지털 인문콘텐츠 결과물 창출을 시도했다. 이번 학술 정기조사를 통해 총 10편의 문화콘텐츠를 창출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 작품들은 모두 유튜브(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채널)에 게시됐다.

### 국어국문학과 한글날 기념 학부생 워크숍 개최

10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양일간, 취업 능력 향상과 학과 전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글날의 의미까지 되새겨 보는 국어국문학과 한글날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대 사회의 국어사용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한글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글과 우리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어국문학과 전공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2019학년도 취업역량 강화 취업선배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10월 11일(금) 인문대 1호관 108호에서 2019년도 국어국문학과 취업선배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학부생이 희망하는 직업군에 진출한 선배들을 초청해 특강 형식뿐 아니라, 자유롭게 선배들의 노하우와 후배들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아직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취업 노하우 전수했다.

### 2019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인문학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학과에서는 11월 8일(금) 인문대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인문학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019년 국어국문학과 의 사업을 관통하는 '인문학의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인문학자'로 살고 있는 전문가 2인 은유 작가와 하성정 편집장을 초청해 학부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영어영문학과

### 영어회곡 강독 및 창작 워크숍 개최

영어영문학과(학과장 백승현 교수)에서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영어회곡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 팀을 구성(지도교수: Robert Grotjohn 교수,



노승희 교수)해 영어 회곡을 탐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창작 워크숍을 개최해 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준비하며 거듭된 연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준비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영문학적 소양에 더불어 영어 구술 능력, 소속감,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워크숍에는 영어영문학과 교수진, 재학생 및 졸업생 뿐 아니라 타과 학생들, 교외 참석자들도 다수 참여하여 총 154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 2019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발표회 실시

학과에서는 11월 12일(화) 대학원생들의 학위청구 논문 공개발표회를 실시했다. 총 4명(박사 2명, 석사 2명)의 학위 청구자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논문을 발표했다.

활발한 질의문답과 토론을 통해 발표자 뿐 아니라 참석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학위청구논문 발표회의 마무리는 교수진과 강사진, 발표자, 대학원생 간의 간담회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 2019 영문어셈블 개최 및 문학 FESTIVAL(공모전) 시상



영문어셈블(ELL ASSEMBLE)은 영어영문학과 전 구성원이 하나 되어 즐기는 교류의 장으로 2019년간 있었던 학과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2020학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영문어셈블의 취지에 맞게 학과 소모임 NOVA(노래바라기)의 문화공연(팝송)과 EDS(영어회곡강독)와 NOVA의 합동공연을 보여 전 구성원이 관람할 수 있었다.

이어서는 창작, 비평, 번역 분야로 문학 FESTIVAL 공모전 시행과 관련하여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수상자는 영어영문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이유찬 학생으로 작품명은 '무엇이 그녀를 죽였을까'이다. '무엇이 그녀를 죽였을까'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스터리한 내용의 소설이며 심사위원들은 이유찬 학생의 상상력과 작품의 흡입력, 문학적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독일언어문학과

#### 서른 여덟 번째 독문학제 개최

독일언어문학과(학과장 조자경 교수)는 매년 독일어권 작가 한명을 선정해서 작가에 대한 심포지엄과 연극공연, 전시회 등을 갖고 있다.

올해는 아쉽게도 연극이 열리지 못하고 옥토버페스트, 독일문화원 소개 등의 행사로 10월 11일(금)에 즐거운 축제를 가질 수 있었다.

#### 독일대학 교환학생 파견 학생들을 위한 <Stammtisch> 실시

학과는 원어민 교수와 학생들과의 수업시간 외 만남으로, 2019년 2학기 독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학생들을 위한 Stammtisch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언어문학과 독일 초급 수준의 학생들과 독일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중급과정의 학생들이 매주 1회씩 모임을 갖고 있다.

월요일 오후 5-6시: 초급과정의 학생들/수요일 오후 5-6시: 중급과정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원어민 교수와 학생들이 매주 관심있는 테마를 가지고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 졸업 선배와 토크 콘서트 개최

학과는 11월 매주 목요일 오후, 취업한 졸업선배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선배들의 학교생활 경험 및 취업하기까지 노하우, 직무 및 직장생활 등을 다양하게 들었다. 초청된 선배들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LG화학, 삼성전자, 공무원, 수자원공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길을 찾아 나서는 나의 진로 워크숍 실시

학과에서는 11월 22일(금)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 진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학생활 1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시간들과 대학생활의 자신 목표 찾기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외부 초청 강사와 본부 입학과정의 대학생들 누리보기 등의 경험 등을 들으면서 알찬 진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 2019년 <독일어 능력 B1 시험 준비반> 운영

독일어 B1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15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12월 14일(토)에 주한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했다.

#### 2019년도 독일어권 기업체 방문

독일언어문학과는 매년 수도권에 있는 독일어권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현장 설명을 통한 기업의 직무능력을 이해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기업 취업 기회 확대코자 하는 목적이다.

12월 23-24일에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방문한 업체는 Schenker Korea, Clear I, 한독상공회의소 등이다.

### 불어불문학과

#### 2019학년도 불어불문학과 하계 프랑스어 캠프

불어불문학과(학과장 하영동 교수)에서는 8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 동안 2019 하계 프랑스어 캠프를 개최했다.

DELF A1, A2, B1으로 총 3개의 분반을 운영해 프랑스어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어민 수준별 집중강좌로 운영됐으며 동계 프랑스어캠프에서 양성된 현장프랑스어 능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외국인 교수 3인(엘로디 로르, 레레미 에세프, 피에르 람베르), 불어불문학과 교수 일동, 조교, 학생들(오세원 외 47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하계 프랑스어캠프는 통상적인 수업현장에서 교육하기 힘든 언어지식과 문화적 능력, 학문적 접근을 심화시키며 전공 적성의 심화와 진로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 불어불문학과 진로캠프 개최

학과에서는 11월 1일(금)과 2일(토)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2학기 불어불문학과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진로캠프에는



는 재학생 23명이 참석했으며 불어불문학과 교수 및 조교가 함께 했다.

1일에는 성남에 위치한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 개발협력 역사관 방문해 지구촌과 개발협력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2일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 참가해 프랑스 또는 프랑스어권으로의 유학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 프랑코포니 문화제 개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이 주관하고, 불어불문학과,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 유라시아연구소가 주최한 '프랑코포니 문화제'가 11월 13일(수)부터 11월 15일(금)까지 진행됐다. 프랑코포니 문화제에서는 프랑코포니 영화상영회, 밴드 트레봉봉(TREBONBON)의 아프리카음악 토크 콘서트, 학술대회, 퀘벡 사진전, Fête de la francophonie, 음식 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프랑코포니의 문화를 소개했다.

#### 2학기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 개최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가 11월 26일(화)에 인문대 1호관 102호, 인문대 3호관 208호에서 개최됐다.



불어불문학과는 현재 학부 졸업자격인정기준 중 전공영역에 졸업논문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을 희망하는 학부생들이 지도교수님과 재학생, 대학원생들이 참관한 가운데 20여 명의 졸업예정자들이 프랑스 문학, 어학 및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 중어중문학과

### 제33회 중문인의 날 행사 개최

중어중문학과(학과장 김태완 교수)는 10월 4일(금) 인문대 소강당에서 제 33회 중문인의 날을 개최했다. 학생들의 공연에 앞서 중문과 동문회의 장학금 수여식, 학과 교수진 소개로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본 공연은 대보름(중국 문화 동아리)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악상(중국어 노래 동아리)의 개인, 단체 무대, 끼(중국 극문화 연구회)의 '인사이드아웃' 연극 순으로 공연을 이어 나갔다. 특히 끼의 '인사이드아웃' 연극 공연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학생들의 호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학생들은 무대에서 그 동안의 노력을 아낌없이 뽐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학생은 준비를 하면서 중문과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고 소감을 남겼다.

###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입학 설명회 실시

학과는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학과 특성에 맞춰 2020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모집 일정, 대학원 지원제도, 학·석사연계 전형 등 소개로 진행했다. 본 학과는 매 학기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운영해 중문과 대학원 홍보와 발전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 중어중문학과 Plan과 Action 취업캠프 실시

학과는 지난 11월 15일(금)과 22일(금) 양일간 중어중문학과 취업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취업캠프는 대학 생활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전공에 맞는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 로드맵 설정에 도움을 주고 중문과 동문 멘토링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1차 전략캠프는 저학년, 고학년 분반을 나눠 맞춤 컨설팅을 진행했다. 저학년은 커리어 개발과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행동을 주제로 자기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학년은 변화하는 사회, 취업 준비시 필요한 정보를 주제로 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2차 선배초청 멘토링은 학과 동문을 초청해 경험담과 조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선배 초청 멘토링에 양희균 동문(08, 한국컨텐츠진흥원), 오정수 동문(13, IBK기업은행)을 초청해 취업 준비 스토리와 대학 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진로 설정과 취업에 고민이 많은 재학생들은 선배의 현실적인 충고와 경험담으로 막연했던 취업에 도움을 받았다.

2주 간 진행한 취업캠프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으로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총 68명의 학생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 일어일문학과

### 세이간 학교 일본 인턴십 초청 설명회

일어일문학과(학과장 김용의 교수)에서는 10월 10일(목) 일본인턴십 및 일본 세이간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세이간 학교 백운자 선생이 방문해 일본 인턴십의 장점, 인턴십 지원 방법 및 인턴십



진행 과정, 세이간 학교에서의 수업진행 등에 관해 설명했다.

###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 개최

학과에서는 10월 10일(목)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학설명회에서는 학과장 김용의 교수가 모집일정, 대학원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 일어일문학과 선배 초청 세미나 개최

학과에서는 10월 16일 진리관 203호에서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 현재 운남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양정미 선생님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일본어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학생에 필요한 교수법 등으로 진행됐다.

###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학위 청구논문 발표회

10월 31일(목) 인문대 1호관 현공세미나실에서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에는 YOSHIDA YUKO(일제강점기 한일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忠'에 관한 연구-〈수신〉〈일어〉〈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아라(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미의 관습과 악녀상을 중심으로-) 등 2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졸업논문을 발표했다.

### 한일관계 역사문화탐방 답사 실시

학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2일(토)에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 집(위안부 역사관), 경기도 남한산성을 방문했다. 이 날 학과장 김용의 교수 외 36명의 교수, 강사, 조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이 참여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 2019학년도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

학과에서는 12월 17일(화)에 인문대 1호관 207호에서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학부생 정용현, ZHANG YUANYUAN, 정종일, 김미영, 정민기, 오유경, TASHPAEV BAKHTIER, 김규정, LI JINGYING, 박준영, 문지영 등 11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졸업논문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학과 교수들과 논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학과

추계 역사답사 실시

사학과(학과장 강은영 교수는)는 지난 9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사흘간 추계 역사답사를 다녀왔다.



사학과 강은영, 임종명, 설배환 교수는 75명의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동안 전남 동남부·서남부 일원에서 답사를 진행했다.

미항사, 백련사, 무위사, 쌍봉사 등 전근대 시기 불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나주 근대문화의 거리와 같은 근현대사 관련 지역도 답사하며 사진과 기록으로만 접했던 역사적 사실을 반추해 보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사학과 축제 '史學祭典' 개최

사학과에서는 매년 11월에 학과 축제로서 '사학제전(史學祭典)'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종래에는 사학과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연구회가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연구회별 소논문을 작성해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올해부터는 역사콘텐츠를 주제로 야외 부스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사 연구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역사 기억하기'라는 주제로, 동양사 연구회는 '동양의 전통놀이-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놀이문화', 서양사연구회는 '우리 지역 속의 서양사-양림동', 덩빙주초는 '창의력과 상식으로 기억하는 100년 전 그날'을 주제로 퀴즈, 놀이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 활동을 마련했다.

인문대 3호관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의 차원에서 새롭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학원 학위청구논문/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 개최

사학과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발표회와 학부 졸업논문 발표회가 각각 11월 15일(금)과 22일(금) 열렸다.

사학과는 현재 학부 졸업규정으로 졸업논문 발표 및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역사학연습> 강의를 전필(3학년 2학기)로 지정해 논문 주제 선정부터 논지 전개 및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예비 졸업생 20여명이 전필 수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 초고를 다듬어 발표에 나섰다.

한편, 사학과 대학원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세 학기 연속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미국사를 전공하는 Tahir Mehmood가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해 사학과 대학원이 세계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철학과

(JOB 로드맵) 2019년 학생취업활동을 위한 응시로 지원 사업

철학과(학과장 조윤호 교수)는 철학과 학부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Job로드맵 응시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학기에는 GTQ 그래픽 기술자격 1급 등 어학 및 자격증 9건에 대해 지원 했으며, 2학기 사업은 2020년 2월 10일(월)까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철학과 대학(원)생 졸업논문 공개발표회

학과는 11월 1일(금) 2019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방연 박사의 사회로 김혜



영(박사과정, 지도교수:노양진, 「예술철학의 자연주의적 전환:언어적 경험에서 신체화된 경험의 미학으로」) 등 석·박사과정생 5명이 발표했다.

또한 학과는 11월 15일(금) 학부 졸업논문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원우(지도교수:김양현, 「칸트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등 25명의 학생이 발표했다. 대상 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논문 계획서 및 개요서 제출, 공개발표회 발표, 최종 논문 제출로 철학과 전공영역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과는 졸업논문을 쓰는 철학과 주전공·복수전공 학생들의 논증적·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혁신선도 학과 시범 지원사업(이하 'PILOT사업')의 일환으로 논증적·비판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졸업논문 보조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철학과 축제 <철인의 날:심포지온> 개최

철학과 학생회(회장 이윤정)는 11월 14일(목) 철학과 축제 '철인의 날'을 개최하고 심포지온을 주제로 영화를 통한 철학적 토론, 게임, 학생 및 교수의 음악 공연으로 진행했다.

철인의 날은 사유와 토론이 있는 철학과만의 독특한 축제로, 학생들이 주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행사다.

2019학년도 철학과 혁신선도학과 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철학과는 전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PILOT 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철학 고전에 대한 강독 및 토론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인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고전강독인증제', 대중 인문학 강의에 도우미로 참여해 인문학 강의 기획 및 운영 등을 배울 수 있는 '청년연수', 동·서양 철학(자) 역사의 흔적을 탐구하는 '해외 학술탐구 기행' 등 7개 프로그램에 교수,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연구소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노자를 읽다> 개설

아시아문화연구소(소장 이주노, 중문과 교수)는 지난 학기에 이어 비움박물관에서 시민을 위한 '노자를 읽다' 강좌를 진행했다. 강사는 양희석 교수(중문과)로, 이번 강좌 역시 50여 명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본 강좌는 8월 21일(수)부터 12월 18일(수)까지 16주간 진행됐으며, '노자'를 넓고 깊게 완독하면서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탐색하는 시간이 됐다. '노자를 읽다' 강좌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 3월 4일(수)부터 6월 17일(수)까지 16주간 이뤄진다. 동양 사상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역사문화연구센터

제8회 한·미·일 대학원생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연구센터(소장 김병인, 사학과 교수)는 지난 8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일본 히로시마 카톨릭 칸온마치 교회에서 제8회 한·미·일 대학원생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남대·도시사대·UCSD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들이 모여 1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한·미·일 대학원생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논의했다.



「광주다움의 속삭임」 출판기념회 진행

역사문화연구센터는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총서 2'로 「광주다움의 속삭임」을 발간해 11월 7일(목)에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2019학년도 제1학기 전남대학교 사학과 전공 강의 '지방사연구법'을 담당하는 김병인 교수와 동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물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20대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본 광주의 모습과 속살을 '광주다움'이라는 주제 의식 속에 담았으며, 단순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일상적 이야기나 사회적 이슈도 함께 다뤘다.

연합 국제학술대회 개최

역사문화연구센터는 11월 15일(금)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전남대학교 일본문화연구센터와 연합해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18세기 향반가의 모비건립 활동과 그 의미(전남대 박미선)」, 「근대 가족이 배제한 것: 낙태, 영유아살해, 인구억제(리스메이칸대 金津日出美)」 등 6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근대 가족 개념의 탄생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근대 가족 형성을 위해 배제된 것은 무엇인지를 토론했다.

영미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영미문화연구소(소장 김연민, 영문과 교수)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교장 김종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기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영어권 사회의 역사, 정치, 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학적 가치관 형성, 영어권 사회의 이해를 돕는 문학 텍스트 소개와 교육, 교실활동, 영미문화연구소 주관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석학 초청강연 개최

영미문화연구소는 10월 18일(금) 인문대 1호관 현공세미나실에서 세계 석학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미국 털사 대학(University of Tulsa)의 두 석학이 초청됐다. 라스 잉글(Prof. Lars Engle) 교수는 '잔혹성, 가족, 동물성: 몽테뉴와 셰익스피어(Cruelty, Family, and Animality in Montaigne and King Lear)'를 주제로, 홀리 레어드(Prof. Holly Laird) 교수는 '마이클 필드의 시와 근대 대안 가족(The Modern Alt-Family of Michael Field)'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영미문화연구소 공동주관 학술대회 성료

영미문화연구소와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공동주관으로 9월 28일(토) 조선대학교 국제관 3층에서 21세기 영어영문학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진리와 젠더 생산 -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교섭'을 주제로 열렸으며 총 19건의 개별 논문이 발표됐다.

이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동향과 상호교섭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황명권 박사를 초청해 'AI Everywhere for Everyone'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 55집 발간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진, 국문과 교수)는 10월 31일(목) 「용봉인문논총」 55집을 발간했다. 언어·문학·문화 전반의 주제를 아우르는 9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2019 인문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개최

인문학연구소는 10월 25일(금)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 기념홀에서 개최했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사업단과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휴먼 윤리를 위한 인문학과 고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는 총 4부로 기획됐으며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일본문화연구센터

‘한일의 역사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일본문화연구센터(센터장 김성은, 일문과 교수)는 10월 25일(금) ‘한일의 역사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자 하중문 교수(한신대)는 최근 ‘NO JAPAN, NO ABE’라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일관계 갈등에 대해 현재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사학과 강은영 교수가 함께하였다. 교내외에서 50여 명의 학생, 교수, 시민들이 청중으로 참여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의 장을 이뤘다.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 국제학술대회 공동주관

일본문화연구센터는 11월 15일(금)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를 주제로 인문학연구원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3개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근대 가족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탐색했다.

나아가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습을 제안했다. 6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간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족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평가됐다.

철학연구교육센터

금남 최부 학술대회 및 유교문화 토론회 개최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 철학과 교수)가 유교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전통과 소통하고,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구상할 수 있는 유교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남 최부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 주제는 ‘남성육아휴직할당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였다.

철학연구교육센터는 “현대사회의 결혼·가족·출산의 의미를 심도 깊게 토론함으로써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문학연구소

「어문논총」-KCI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김동근, 국문과 교수)가 발간하는 학술지 ‘어문논총’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인문대학 구성원들의 학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소의 운영진들은 「어문논총」의 학술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한국비평문학회 전국학술대회 공동개최 ‘제3회 한국어문학과 가족’ 콜로키움 개최

11월 22일(금) 김남주기념홀에서 ‘2019년도 한국비평문학회 전국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초개인화 시대, 가능한 공동체와 한국 비평담론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립과 혐오,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과 문학연구자의 길을 모색했다.

또한 12월 9일(월) 인문대 2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제3회 한국어문학과 가족’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는 교내 HK플러스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시리즈로 기획됐으며 단행본 발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화엄학의 심식차별론’ 콜로키움 개최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조윤호, 철학과 교수)는 9월 27일(금) 인문대 2호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화엄학의 심식차별론’(발표자: 조배균 전남대 철학과 BK연구교수)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화엄학의 체계를 정립한 ‘화엄오교장’의 심식차별 논의를 통해 마음의 본성과 식별작용 등과 관련한 여러 교파의 가르침들이 어떤 마음을 설하고 있는지 화엄종의 관점과 논리를 통해 탐색했다.

호남학연구원

해외 협정연구소와 연합학술대회 개최

호남학연구원(소장 정경운,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은 상호교차방문 형식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온 중국 안후이대학 휘학연구원,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월과 12월에 각각 협정연구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월 12일(토) 중국 허페이에서 ‘동아시아의 예속 전통과 사회 치리’를 주제로 열린 안후이대학 휘학연구원과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예속 전통이 각 지역에 미친 영향과 현대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2월 7일(토)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와의 학술대회에서는 ‘오키나와와 한국의 청년문화’라는 주제로 두 지역 청년세대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호남학연구원은 앞으로도 해외 협정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역학 연구의 방법과 주제역사 등을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제5회 영호남의 대화 연합학술대회 개최

호남학연구원은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과 함께 ‘3·1운동을 되묻다’는 주제로 12월 20일(금)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것으로 지난 해 12월 경북대에서 열렸던 첫 번째 학술대회에 이은 두 번째 학술행사이다. 전국각지에서 열풍처럼 진행되었던 ‘3·1운동 100주년’ 행사들을 지켜본 두 연구원은 3·1운동 자체에 대해 성찰하고 다양한 관련 논의들을 되돌아보며 향후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영호남 학자들의 학술토론을 진행했다.

## 김남주기념홀

나는 나의 시가  
가난한 이들의 동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 김남주기념홀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6일(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 앞서 김남주 기념홀을 방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남주 시인의 육성 오디오와 안치환 헌정앨범 오디오를 감상했으며, 벽에 새겨넣어진 시 '조국은 하나다'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다.

또한 "광주는 곧 자유이고 민주라고 생각한다"는 방문 소감을 밝혔다.

## 전남대 민주동우회 김남주 기념홀 방문



10월 9일(수) 제8회 민족전대 민주가족만마당 행사에 참석한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원들이 김남주 기념홀을 방문했다.

'김남주 시인 소개 영상' 및 '김남주 시인을 기억하는 지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관람하며 시인의 시와 정신을 다시금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는 김남주기념홀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국어국문학과 BK21+ 지역어기반 문화가치창출 인재양성사업단

강의일시	일정	주요 사업	비고
9월	20일(금)	2019-2학기 오리엔테이션	
	27일(금)	전문가 초청 강연1/콜로키움1	이재홍 교수(송실대)
10월	4일(금)	글쓰기 특강1	학술적 글쓰기(석사/박사), 유소연/정미선 박사
	10일(목)-12일(토)	제14차 단기 해외연수 실시	중국 연변대학교
	18일(금)	전문가 초청 강연2	목정수 교수(서울시립대)
	25일(금)	글쓰기 특강2	김현정 교수(순천대)
11월	1일(금)	전문가 초청 강연3	김만석 큐레이터
	8일(금)	콜로키움2	신규 박사, 학회 발표자
	11일(월)	해외석학 초청 강연1	유영주 교수(미국 미시간대)
	29일(금)	참여교수 특강	백승주 교수(전남대)
12월	6일(금)	해외석학 초청 강연2	로스 킹 교수(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13일(금)	전문가 초청 강연4	박기수 교수(한양대)
	20일(금)	해외석학 초청 강연3	권용해 교수(프랑스 라로셀대)
	27일(금)	콜로키움3	국제 학회 발표자

2019년도 2학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문과 교수)의 제13회 오리엔테이션이 9월 20일(금) 진리관 701호 108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업단장,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참석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새로운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을 소개하고, 19년도 1학기의 사업단 성과를 공개하고, 19년도 2학기 사업단의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5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개최

사업단은 11월 11일(월) 김남주기념홀에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 유영주 교수(아시아언어문화학과)를 초빙해 제25회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가졌다. 유영주 교수는 '저항과 매체:오직에서 나꿈수까지'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독재정권 시절에 정치적 저항의 매개체였던 김지하의 「오적」과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절에 정치적 저항의 힘을 추동했던 '팟캐스트 나꿈수'의 에피소드들을 매체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1970년대 대안 매체에서 2000년대 디지털 매체로 이어지는 매체의 변천과정이 정치적 변화의 중요한 순간들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에서 '1970년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이우과 정치'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제26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개최

사업단에서는 12월 6일(금) 인문대 2호관 408호 교수회의실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로스 킹 교수를 초빙해 제26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동아시아 한자권에 나타난 양층언어 현상’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로스 킹 교수는 근대 이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트랜스코컬 공동체의 문화 형성에 관련이 되는 언어 문제에 주목해, ‘한자문화권’에서의 한어와 지역어 사이의 관계성을 ‘양층언어(diglossia)’로 설명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폈다.

또한 이에대한 대안적 개념(hyerglossia)을 제안하면서, 근대 이전 동아시아 한자권에 나타난 언어 기반의 문화 접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국 연변대학교 연수 실시

사업단은 10월 10일(목)부터 12일(토) 2박3일 동안 중국 연변대학교를 방문해 제14차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기간 동안 사업단은 중국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과의 학술적 상호 협력 협의 및 학술 협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해당지역의 한국어문학 및 문화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양 기관 연구자 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양 기관 대학원생 간의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대학원생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단 대학원생 4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사업단은 이번 연수가 중국 연변 지역의 한국어문학·문화 관련 교육·연구 동향 파악 및 관련 공동 연구 추진과 중국 연변 지역의 우수 교육·연구 기관 및 전문 인력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적 연구 및 학술 활동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인문학 기반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사업단은 10월 14일(월) 전남대 LINC+육성사업단(단장 김재국, 신소재공학부 교수), (주)폴투윈코리아(사장 박영목)와 함께 ‘인문학 기반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문학 기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AI 산업에 대한 인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국문과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은 AI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말뭉치(CORPUS)이, 즉 컴퓨터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저장된 어절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참여해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지역어와 문화가치 학술총서 7

총서에 실린 연구들은 다년간의 사업을 통해 발휘했던 결실로, 이미 투고하여 게재됐던 논문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것도 있고, 인문형 LAB 활동에서 마련한 연구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것도 있다. 그래서 학술적, 교육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난 연구 작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또 다른 목표를 갖는 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두 분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고전문학 분과 구성원들의 6편의 논문을 담았다. 2편의 신진연구원 논문과 4편의 참여대학원생 논문이 수록되었다. 2부는 현대문학 분과 구성원들의 6편 논문을 담았다.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6편이 수록됐다.

## 지역어와 문화가치 학술총서 8

이 총서는 한 학기 동안 인문형 랩(LAB) 활동을 하면서 만든 결과물이다. 인문형 랩은 사업단의 연구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여 지역어의 문화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랩 활동은 완도 지역에 현지 조사를 나가서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전사하는 작업을 통해 지역의 언어적 원천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총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부는 자료편으로 전남 완도 지역의 삶과 언어를 전사했으며, 제2부는 연구편으로 전남 지역의 원천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다.

철학과 BK21+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모집  
및 워크숍 개최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노양진, 철학과 교수)은 10월 11일(금) 인문대 1호관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학술연구교수가 모여 2018년 하반기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단의 목표와 연구 성과, 사업 참여 혜택 등을 설명하면서 연구논문작성법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교육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증진 및 인권 향상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은 2학기 참여대학원생으로 19명(석사 5명, 박사 14명/외국인 2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이 동양과 서양, 이론과 실천을 넘나드는 횡단형 철학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 실시

사업단은 10월 11일(금)과 12월 13일(금) 2회에 걸쳐 인문대학 1호관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업단은 2014년부터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진행했으며,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2회씩 올 한해 총 4회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는 참여대학원생들이 그 동안 준비했던 연구 성과 발표와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지도로 이뤄졌다.

10월 11일 3차 발표회에서는 조난주 「현대 사회와 자기 배려 : 푸코의 자기 배려 개념을 중심으로」 외 10편이, 12월 13일 4차 발표회에서는 민병재 「현대 뇌과학의 시지각 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외 8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표회를 통해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이 시작한 2013년 9월 이후로 국·내외 학술지에 47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39편을 발표했다.

김동식 전육군사관학교 교수  
전문가초청강연 개최

사업단은 12월 13일(금) 인문대학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은퇴한 김동식 박사를 초청해 전문가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김동식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1991년 미국 Emory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분석철학 및 실용주의 전문가로서 은퇴 후에도 다방면에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네오프래그머티즘과 메타철학적 메타포들'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리처디 로티의 사상에 대한 소개를 넘어서서 한국의 철학적 바탕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신실용주의에 대한 강의와 함께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번 강의는 참여대학원생이나 다원주의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구체적인 문제 찾기와 해결의 과정을 보여줬다.

조창오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문가초청강연

사업단은 12월 19일(목) 인문대학 313호 현공기념강의실에서 부산대학교 철학과 조창오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했다. 조창오 박사는 2014년 독일 Leuphan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학 및 사회철학에 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해결의 감정 개념」, 「한국적 생존사회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반성」 등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고향 없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2018년에 작성한 한국적 생존사회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반성의 후속으로서 한국 사회의 '아파트' 중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사회비판적 태도로 이론-실천 횡단적 철학적 연구 성과물을 소개했다.

##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 2019 국제학술대회 성료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철학과 교수)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과 철학연구교육센터, 역사문화연구센터, 일본문화연구센터가 공동주관한 국제학술대회가 11월 15일(금) 전남대학교 G&R Hub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근대 동아시아와 가족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근대 가족 윤리, 가족 담론, 아동 교육, 가문 현상 등 가족공동체와 연관된 개념과 활동 과정을 추적,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세션에서는 류승웨이 교수(중국 길림대학)와 박미선 교수(인문학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류승웨이 교수는 「중국 가정윤리의 근대적 변천」이란 주제로 부부평등의 등급 관계에서 일부일처제의 추진에 따른 부부평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윤리가 형성되어, 중국 가정윤리의 근대적 전형이 실현됨을 주장하였다. 한편 박미선 교수는 「18세기 향반가의 묘비건립 활동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전라도 고흥지역 향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 묘비 설립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정체성 구현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묘비 건립 운동을 조망했다.

2세션에서는 가나즈 히데미 교수(일본, 리쓰메이칸대학)와 이새봄 교수(연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가나즈 히데미 교수는 「근대 가족이 배제한 것: 낙태, 영유아살해, 인구억제」라는 주제로 에도시대의 지방 정치제인 번(藩) 차원에서의 육아관련 정책과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근대적 육아 관련 정책 사이의 영향 관계, 민과 관의 긴장관계를 면밀히 고찰했다. 이새봄 교수는 「근대 일본의 양처현모론 탄생의 맥락」이란 주제로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친 여성담론의 안팎을 꿰는 맥락 속에서 양처현모론이 도쿠가와시대 여성담론과 단절된 지점을 짚어냈다. 3세션에서는 한의승 교수(인문학연구원)와 김세서리아 교수(성균관대)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의승 교수는 「『주자성리음』과 조선후기 훈몽서의 관계」라는 주제로 『주자성리음』이 조선후기 초학교재에 끼친 영향을 최근 발굴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가족 내 아동교육 텍스트로 활용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세서리아 교수는 「중국 근대 지식인의 가족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이해」라는 주제로 중국 근대시기 남성 지식인들이 중국의 근대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했던 가족담론, 유교가족폐지론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가족 문제를 통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논의를 펼쳤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와  
MOU 체결

인문학연구원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와 9월 26일 전주대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양 기관 사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국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행사 기획과 개최’, ‘미래 공동체 관련 분야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정보 공유’, ‘연구 인력과 간행물의 상호 교류 및 교환’ 등에 상호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 가족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유교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유교와 가족을 뛰어넘는 발전적인 미래 공동체 구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해 보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양 기관의 협약 체결은 유교문화의 탈영토화와 가족커뮤니티라는 이질적이면서 상호보완적 성격의 아젠다가 결합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관간의 창발적 소통과 연합을 통해 HK+사업단의 공동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협약 체결은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8-9차 콜로키움 성료

인문학연구원은 9월 27일(금)과 10월 30일(월)에 인문대 2호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사업단의 8~9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8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 HK연구교수의 사회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숙인 교수를 모시고 「유교 가족의 원리와 역사」란 제목의 발표회를 진행했

으며, 9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HK교수의 사회로,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을 모시고 「가족변화의 양상과 지역사회 조성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8차 콜로키움에서 이숙인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모든 가족 서사(관념, 이념, 사상)는 정치·경제적인 맥락 위에 있으며, 사회 및 국가의 질서 역시 가족 질서와 연동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교 가족의 핵심은 종법제로 종법은 ①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②가족 내의 신분과 재산, 권력을 분배하는 문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종법제를 지탱하는 것은 동성불혼(同姓不婚)의 혼인제와 처첩제, 중매혼 등인데, 종법제는 부계를 선택하는 관계로 부권의 확립과 강화는 필연적으로 모권 약화를 가져왔고, 이는 곧 여성 지위의 하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유교 가족의 원리와 역사를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편 9차 콜로키움에서 김소영 팀장은 최근 급변하는 가족관계의 현실을 “플랫폼(Plat-home)”, ‘보나 파이드, 진정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 ‘초개인화(Hyper individual)’라는 세 가지 트렌드로 분석하면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이었던 집이 다양한 목적의 생활플랫폼으로 진화하고 혈연을 벗어난 관계 중심 가족이 등장하며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에서 가족-개인의 공존으로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가족 및 가족관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제14회 인문주간 성료

인문학연구원은 10월 29일(화)부터 11월 2일(토)까지 5일 동안 제14회 인문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29일(화)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HK교수의 사회로 정미라 인문학연구원장의 인문주간 선포식을 시작한 뒤, 정희진 교사의 ‘소통 불가능성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스머드는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다.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는 Gn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가족으로 새긴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가족 영화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에는 영화제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과, 「B급 며느리」의 선호빈 감독을 직접 모시고 감독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감독과의 만남 행사는 영화를 직접 만든 감독과 영화를 본 관객이 직접 대면해 영화와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윤가은·선호빈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감독과 관객이 함께 영화를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는 생생한 현장성이 구현된 장으로 의미가 있었다.

11월 2일(토)에는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내 인생의 책, 내 삶의 한구절-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시민주체 토크 콘서트와 폐막식이 거행됐다. 특히 시민주체 토크 콘서트는 인문학연구원 지역인문학센터 노동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수백명을 상회하는 신청자 가운데 선정된 22명과 책과 구절을 선택한 이유와 의미 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인문대학 취업지원실

2학기 인문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 운영

인문대학은 취업교과목 『생애와 직업탐색』을 개설하고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교과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과목은 2·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 대한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레포트를 부여하고 일부 내용의 경우 교과 시간에 피드백 및 실습활동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 내용은 채용동향, 직무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 프레젠테이션 스킬, 취업계획서 등 취업의 서류전형에서부터 마지막 면접 준비까지를 포함한다. 본 교과목의 운영 전반은 인문대취업지원실(인2-113)에서 담당하고 있다.

2학기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진로방향에 맞는 동아리 팀을 구성해 취업/창업/문화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문학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인문학 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해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으며 12월 기준 25개팀 12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기업/사기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팀과 연극공연, 문화콘텐츠 스튜디오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팀,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팀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총 10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비(4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하여 지원한다. 멘토초청, 연극제작 등 특별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2학기 인문 고전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운영

인문대학은 인문학 학생들의 전공분야인 인문학 고전에 대한 학부생의 전공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영상콘텐츠 등의 기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융복합적인 인문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9월 중에 참가학생을 모집해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했으며 12월 현재 총 5개팀 16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팀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 고전 스튜디오, 영상콘텐츠 제작, 연극대본 제작 등이다. 팀별 총 10차시 이상의 모임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비(40만원/1팀)는 총 2회로 나눠 정산해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동계방학(2020년 1월까지) 기간 신청팀을 새로 모집해 운영을 할 계획이다.

2학기 인문대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 활동

인문대학은 융합인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서포터즈 ‘인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다’는 사이더처럼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고민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싶다는 의미이다.

학과별 1명씩 총 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프로그램 및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인문대 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 2학기부터 시행됐다.

주요 활동은 인사이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및 인스타그램 계정, 학과별 단톡방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학생 대상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취업 및 채용정보를 월간지로 제작해 카톡플러스친구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고, 도전장학금, 현장실습, 직무적성검사 등 교내외의 유익한 정보를 선별해 한 눈에 들어오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한편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험공부를 하는 인문대 학생들을 위해 간식 등을 취업정보와 함께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2학기 인문대 선배초청 취업멘토링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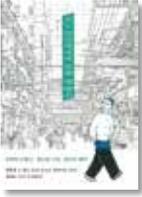
인문대학은 학생들에게 취업한 선배가 재학생에게 취업멘토 역할을 하고 생생한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11월과 12월 총 3회에 걸쳐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

취업선배로는 CMB광주방송 PD(2018. 2.졸업), 아시아나항공 공항서비스직 사원(2019. 2.졸업), 중등임용시험 합격자(2017. 8.졸업)를 초청해 구직과정과 취업성공 노하우, 그리고 현 직무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재학생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멘토링에는 약 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취업선배의 대학생활과 구직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 가감없는 솔직한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멘토링에 참석한 학생들은 최근에 졸업한 취업선배의 멘토링이라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현실적인 조언과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인문대학 신간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 백승주 은행나무, 2019

순도 100퍼센트 외국인이 된다는 것, 다른 호흡으로 작동하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유려하고 재치 있는 문체로 역설한 「어느 언어학자의 문맹 체류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학자이자 사회언어학자인 백승주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에 교환교수로 파견된 후 여행자가 아닌 순도 100퍼센트 외국인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각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어떤 단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라는 큰 풍경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한 사람의 정체성과 한 사회의 정체성은 언어를 비롯한 여러 상징으로 연결되고 조직되며, 문화라는 것도 기실 다양한 디폴트값들의 묶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세상에 고정된 절대 값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기본 값에서 벗어날 때 갑갑했던 일상에 틈이 생기고, 진짜 여행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요해단총록 6 신해진 역주 보고서, 2019

이 책은 「형세언(型世言)」의 저자로 알려진 육인룡(陸人龍)이 지은 시사소설 「요해단총록」을 처음으로 역주한 것이다. 청나라 건륭제(乾隆帝) 때 나온 「금서총목(禁書總目)」에 오른 작품으로서 8권 40회 백화소설이다.

「요해단총록」은 8권 40회라는 대작인데다 백화문과 고문이 뒤섞여 있어 접근이 어렵다. 후금과 관련된 인명, 지명, 칭호 등

이 음차(音借)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소설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밀한 주석을 붙이면서 정확한 번역을 한 역주서가 필요한 것임을 절감한다.

다만, 「요해단총록」에 대한 정치한 작품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랄 뿐이다.



경판방각본 영웅소설선 신해진 전주 보고서, 2019

그간 국문 고소설 가운데 가정소설, 우화소설, 영웅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유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주서(選注書)를 간행해 왔다. 특히 영웅소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유형이다.

2018년에 <완판방각본 유충렬전(보고사)>과 <완판방각본 이

대봉전(보고사)>을 출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개별 작품이 아니라 다섯 작품을 선별해 묶은 '선집(選集)'을 출간한다.

이 선집에는 <금방울전>, <백학선전>, <쌍주기연>, <장경전>, <정수정전> 등 다섯 작품이 수록되는데, 그 선택 키워드는 '여성'이다.



소설 FAQ 장일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가ikai 소설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 관여된 서사 현상에 대해 여러모로 질문하고 싶었지만 문기에는 견연찍었던 초보적인 질문부터, 인문학적 시야를 넓혀 줄 최신의 서사 이론에 관한 질문까지, 그 물음에 답이 될 기본 개념들과 심화 개념들에 대한 해설을 이 책에 담았다.

매체의 다변화된 종적 폭발 속에서 이론적으로 뒤쳐진 생각들을 돌이키고 서사 현상에 다가갈 단서와 비평 역량을 키울 바탕을 제공하고도 있다.

이론서의 경직성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취한 문답 형식을 통해 서사 이론을 명쾌하게 해설했다. 적절하지 않거나 시효가 지

나 낡은 개념을 바로잡아 온당한 이해의 지평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문답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해시-태그', 개념의 이해를 확장하여 비평에 있는 예시를 보이는 '헤르메스의 교신', 이해의 확산을 제안하는 '지평에서,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로 이어지는 차례를 따르며 심화된 생각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인지적 창발과 확산적 사유를 구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서사체 등에 자유롭게 분방하게 다가설 지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광주다움의 속삭임 김병인 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전남대 사학과 김병인 교수는 강의 방법과 내용에 변화를 주면서도 줄곧 유지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전공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학과 과생으로서 더 나아가 인문학도로서의 자부심과 능력 발휘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대의 관점에서 광주의 본 모습을 찾아서 ‘광주다움’에 대해 속삭여 본다. 김병인 교수는 “학부생의 글인지라 그

내용과 형식에 불미한 점이 많을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에 결심한 이유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20대에 자신만의 시선으로 광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힘을 발휘해 보고, 또 이를 단행본 출판이라는 결과물로 장식함으로써 이후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짙은 힘을 안겨주고 싶었으며, ‘상상과 열정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결코 무의미한 수사가 아님을 믿고 싶었다”고 말한다.



### 오백 번의 로그인 이미란 외 경진출판, 2019

「오백 번의 로그인」은 글쓰기 공동체를 꿈꾸는 열두 사람의 100일 글쓰기 모음집이다.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콘셉트의 100일 글쓰기는 2017년 3월 1일 ‘글쓰기 치료 연구’ 카페를 통해 첫 시즌을 열었다.

구성원들 중 대학에 적응을 두고 있는 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봄 학기와 가을 학기가 시즌을 여는 시기가 되었다. 2019년 6월 8일까지 ‘100일 글쓰기’의 다섯 시즌에 모두 참여한 사람은 500일 동안, 500번 이상을 카페에 접속해서(동료의 글을 읽고 댓글도 썼기 때문에) 글을 쓴 셈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백 번

의 로그인」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탄생했다.

지금까지 100일 글쓰기의 각 시즌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육, 종교, 의료,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주부, 학생 등 직업의 층위가 다양하지만, 책임감과 글쓰기, 그리고 인문학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은 각 시즌 참여자의 글 세 편씩을 골라 실었는데 첫 시즌에 다섯 사람의 글 15편, 두 번째 시즌에는 여섯 사람의 글 18편, 세 번째 시즌부터 다섯 번째 시즌까지는 각각 일곱 사람의 글 21편 등 총 96편의 글이 실려 있다.



### 문학이론의 주제적 수용과 한국 현대문학 임한모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이 책은 벤야민과 들뢰즈의 문학이론이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어 수용되고, 그들의 문학이론과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의 수용이 얼마나 적합성을 지니고 한국문학에 새로운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의 문학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문학적 글쓰기로서의 문학행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배적 압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감각적 새로움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함의하고 있다.

저자는 그들의 논리를 ‘비역질’하거나 ‘밀침’으로써 ‘창조적 오독’이나 ‘생산적 오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문학, 특히 호남의 현대문학을 연구했다. 연구 대상은 1960년대 한국문학의 분기현상, 한국전쟁 기간 중에 4회 간행된 「신문학」, 최인훈의 「화두」, 이청준의 중·단편소설, 송기숙의 소설과 동학혁명, 조정래의 「태백산맥」,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단편소설, 김현구의 시, 손광은의 첫 시집 「파도의 말」, 범대순의 시들이다.



###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 김성훈 역 지식음만드는지식, 2019

「미친 사랑과 전쟁 속에서」라는 강렬한 제목 자체가 가리키듯이 시인이 표현하는 (개인적인 연애 감정이 아닌) ‘사랑’에 관련한 원초적인 감정들은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담지한다.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감정인 ‘냉정과 열정’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이면서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의 시적 줄타기라고 하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에로틱한 사랑에 관한 시에 나타난 이런 하조의 감정 표현은 종종 ‘양가적’이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의 줄타기는 직접

적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은유적, 인유적, 무의식적이어서 모호하며, 하조의 시를 처음 접하는 독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조의 시적 화자는 이러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인간 감정의 심층과 심연을 들여다보고, 드러내면서 독특한 감정의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는 하조의 시들이 토착민 세계관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동 개념에 관한 논의들을 적용해 읽기에 적합한 텍스트임을 보여 준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연관성과 독자성** 송경안·김순임 신아사, 2019

영어는 21세기 전 지구촌 주민의 숙명이 되어 버렸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영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는 누구나 영어란 어떤 언어인가에 대해 한번쯤 궁금증을 가져 볼 만하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17세기의 실기 문학과 문헌 탐구** 신해진 역락, 2019

오랑캐로부터 상처받은 승리와 패배의 굴욕을 감내해야 했던 당대인들의 기억과 증언은 17세기 전후 '민족의 수난기'(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에 새로운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기록물들이 나오게 되는 동인이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17세기 실기에 대한 제대로 된 역주서들이 거의 없었다. 공적인 기록물들에서 거둬

들이지 못하고 도외시한 당대인들의 처참하고 긴박했던 것에 대한 기억과 증언들이야말로 처절했던 생존의 질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밀하고도 정확하게 역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17세기의 실기(實記) 역주서 27권을 간행하며 그때마다 생각했던 흔적들의 글을 모아 엮은 것이다.



**천 개의 글자, 천년의 문화** 손희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고전탐독 9권. 누구나 알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오래된 고전 「천자문」에 얽힌 이야기를 전한다.

한자 학습서로, 서체 교본으로 널리 사용된 「천자문」이라는 책의 역사, 「천자문」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천자문」을

넘어서지 못한 교재들, 천자문에 담긴 글자와 문화지식, 왕실에서 만든 「천자문」의 아름다움과 쓰임 등 우리 생활문화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천자문의 다양한 흔적들을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다.



**루선의 광인일기, 식인과 광기** 이주노 21세기북스, 2019

강고한 봉건적 질서 속에서 '광기'를 통해 중국사회의 '식인'적 본질을 드러내는 루선의 「광인일기」 주인공의 상징성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울림이 결코 작지 않다. 마오쩌둥이 루선을 '위대한 문학가, 사상가이자 혁명가'요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이라고 추켜세운 이래, 그동안 루선에 대한 독해는 정치의 자기장 아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책 「루선의 광인일기, 식인과 광기」는 민낯의

텍스트와 철저하게 마주함으로써 「광인일기」의 보편성과 현재성을 밝혀내려는 시도이다.

「광인일기」라는 텍스트 내부 질서에 주목하는(1장) 동시에 텍스트 너머의 다양한 글쓰기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며(2장), 광인과 광기를 형상화한 세계문학 작품들을 비교·분석하고(3장),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광인일기」 연구 현황을 정리했다(4장).



**체험주의 민속학** 표인주 ㈜박이정, 2019

민속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연구나 현재적인 측면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재부터 미래까지 확장해 응용민속학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기 쉽지 않다. 생태적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과정 속에서 신체적 기억에 의해 형성된 삶의 체계가 바로 민속이라는 점이다. 즉 민속은 인간의 감각적 신체 운동에 근거

해 확장된 다양한 경험적 지식인데, 여기서 경험적 지식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형성 기반인 물리적 기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속의 물리적인 기반에 대한 관심은 민속의 지속과 변화는 물론 그것의 원천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의 계보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속, 즉 삶의 체계가 경험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뿌리가 신체적 층위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는 존슨(Mark Johnson)의 체험주의적 해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족시인 김남주  
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

# 김남주 기념홀

---

개관시간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 오전 10시 ~ 오후 5시

(5월 한정 개관)

---

특별개관

신청에 의함

행사 시에는 기념공간 관람이 제한됨



김남주기념홀 운영위원회